

제4차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 회의록

일 시	2020. 7. 1.(수) 16:00 ~ 18:40
장 소	전주시청 4층, 회의실
참 석 자	이양재 위원장 등 10명 (재적인원 11명 중 10명 참석)
주요내용	○ 토지소유자(자광)의 제안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 ○ 공론화 용역 제안서 평가기준(항목) 자문 ○ 차기 회의 일정
회의결과	○ 토지소유자(자광)의 제안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 - 프로젝트파이낸싱(PF)문제 - 시민공론화 결과에 대한 수용 가능여부 - 공공기여 및 기부채납 이행에 대한 담보 신뢰성 - 사업 시행 시 주변 환경 및 교통 영향에 대한 구체적 대책 ○ 공론화 용역 제안서 평가기준(항목) 자문 - 정량적평가(20점), 정성적평가(60점), 가격평가(20점) ○ 차기 회의 일정 - 2020. 7. 8.(수) 09:30 ~

제4차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 회의록

#. 개 회

발 언 자	발언 내용
간사	- 금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공론화위원회 총 재적인원은 11명 중 10명이 참석하셨습니다. - 운영규정 제8조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늘 회의는 언론기관의 요청에 따라 회의 시작 후 약 5분 정도 공개하고 촬영에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3차 회의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옛 대한방직 부지 소유주인 (주)자광으로부터 정책 제안내용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부터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 토지소유자[자광]의 제안내용 설명

발 언 자	발언 내용
위원장	-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금일은 토지소유자인 자광의 제안내용에 대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자광 관계자	(제4차 회의 속의자료의 프레젠테이션 자료 참고)
위원장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 전주시가 2035년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을 2020년 6월에 결정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주)자광 관계자	- 잘 모르고 있습니다.
○○○ 위원	- 전주시 2035 도시기본계획이 2020년 6월에 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 이 의미는 2035년까지는 서부신시가지에 있는 대한방직 부지를 주거용지로 계속 가겠다는 것이 공식화된 전주시의 입장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광이 이러한 정책제안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전주시 방향과는 다른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 이 점에 대하여 자광 측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주)자광 관계자	- 옛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사업계획은 2017년부터 진행하였으며, 기본계획 확정 이후에도 수정, 변경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 위원	- 자광에서 시행한 주요 사업이 어떤 것들입니까?
(주)자광 관계자	- 주로 주택건설개발사업이며, 2008년도부터 수도권, 서울에서 진행하였습니다.
○○○ 위원	- 재무제표상 자광의 자본금에 비해 부채비율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주)자광 관계자	- 국내에서 부채비율로만 계산하면, 삼성, 전북은행도 높습니다.
○○○ 위원	- 그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부채비율이 일반종합건설업 평균부채비율과 비교해보면 과도해 보입니다.
(주)자광 관계자	- 이 사업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모든 이행이나 준공 등은 시공사에서 금융회사에 제출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 위원	- PF사업으로 개발하더라도 일단 자광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건전성을 보기는 해야 합니다.
(주)자광 관계자	- 그래서 이 건물의 책임준공이나 모든 이행을 저희가 아닌 A등급 이상의 시공사가 금융회사에 허가 당시에 책임준공이행보증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 위원	- 공론화위원회는 인허가 내지는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어떤 안이 좋을까를 여론조사나 각종 공론조사를 통해 나온 안을 시에 보고하는 역할입니다. - 그 안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전주시의 수용성 문제와 자광측의 수용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 자광의 기본사업계획이 아닌 공론화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나온다고 하면 그 안에 대한 자광측의 수용가능성이 궁금합니다. - 또 하나는 컨벤션과 호텔이 종합경기장 계획과 중복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중복되는 측면에 대해서 계획의 변경 내지는 종합경기장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두 가지 질문드립니다.

○○○ 위원	- 같이 연계해서 질문드립니다. - 전주시의 방향은 가장 한국적인 한문화 관광도시를 타이틀로 하는데, 자광측의 익스트림 타워등의 개발방향이 전주시의 방향과 부합되는지와 주거개발방식도 상당히 고층 주거단지 개발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방향이 전주시의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발전방향에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두 번째는 공론화위원회에서 안이 채택되었을 때, 그 안에 대해 전주시나 시민협의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가면서 사업을 진행하실 의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설명해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위원들이 자광의 사업설명을 듣고자 했던 것은, 저희가 어떤 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나리오워크숍을 통해 참여자들이 어떤 방안이 가장 좋을까를 토론을 통해 시나리오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 시나리오워크숍 참여자분들이 저희 위원들에게 질문도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도 자광의 사업 제안내용을 알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자광 관계자	- 네, 그러면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저희는 옛 대한방직 부지가 타워 건립에 가장 좋은 여건이라고 분석했고, 3년 동안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 전주 2035 기본계획이 변경되고 있으니, 전주시가 대한방직부지를 상업용지로 변경시켜도 충분히 수용 범위 내에 있고 현행법에 위반 되는 것이 아니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제안했습니다. - 타워개발을 통해서도 전주가 추구하는 정체성, 문화예술과 호환되고 관광인프라를 형성하는데 일익을 다할 것이라고 여러 조사나 연구 용역을 통해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 타워의 디자인도 전주한옥마을 또는 전주의 문화역사와 크게 동떨어 지지 않는 형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 ○○○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없으시고, 또 ○○○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과는 조금 설명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 ○○○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답해주셨으면 합니다.
(주)자광 관계자	-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계획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 급부상하게 되면 오히려 롯데 측에서 생각을 바꿀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는 종합경기장 부지를 개발한다는 것에 반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 위원	- 쇼핑몰과 호텔, 컨벤션이 종합경기장 부지와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서 중복됩니다. 따라서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에 따라 한쪽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 그래서 자광 측에서는 롯데쇼핑 측과의 협의라는지 해소방안 가능성이 있는 건지 여쭙봤습니다. - 또, 한가지 질문은 공론화위원회에서 나온 안에 대해 전주시 측의 수용성 문제와 토지소유자인 자광의 수용성 문제가 존재합니다. - 과연 자광측은 공론화위원회에서 나온 안에 대하여 수용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여쭙습니다.
(주)자광 관계자	- 기본적으로 타워가 구성되는 개발 계획(안)이라면 충분히 수용 가능하지만, 원천적으로 이 사업계획을 전반적으로 변경한다면 수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 대한방직 부지에 시민들이 가는 공공성도 이해는 해주셔야 한다고 봤을 때, 시민들이 낸 안들이 자광측의 안과 상당히 거리가 있을 수 있다고 봤을 때, 자광측의 수용 가능성의 폭이 좁다고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주)자광 관계자	- 네, 그렇습니다.
○○○ 위원	- 한가지 질문 있습니다. 타워가 143층에서 153층으로 상향된겁니까?
(주)자광 관계자	- 예, 바뀌었습니다.
○○○ 위원	- 다음 질문은 환경에 관한 겁니다. - 하나는 대한방직 부지 앞에 우미린 등의 아파트들이 있는데, 가장 높은게 20층이 안됩니다. 그런데 대한방직 부지에 60층짜리 건물을 짓게 되면, 기존아파트의 조망권이 무너지게 되는데, 그게 과연 전주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인지이며, - 두 번째는 바람길과 열섬현상에 대해 판단하셨는데, 공식적인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인 시스템분석인지 궁금합니다.
(주)자광 관계자	- 조망권에 대해선 크게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며, 환경영향평가는 인허가에 기준이 맞도록 필요한 부분을 작성하여 관련 기관에서 시행하였습니다.

○○○ 위원	- 기부채납비율을 77.41%로 계산하셨습니다. - 이게 토지, 시설, 공공재원 혼용방식이라고 하셨습니다. - 제가 계산해보면 토지비율은 14.37%인데, 보통 기부채납을 하면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기부채납을 산정하고, 그 외에 이 시설로 인해서 도시기반시설에 부하가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로 갑니다. - 기존에 기부채납비율 면적이 너무 적다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토지로 봤을 때 약 16%정도 였는데, 오늘 다시 보니 더 줄어서 토지로는 14.37%이고 나머지 50%이상은 시설하고 현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또 원하시는 대로 개발을 하고 나서 나머지 50% 공개공지를 시에 기부채납할 의사는 있으신지 여쭙습니다.
(주)자광 관계자	- 현재 기부채납은 토지, 시설, 현금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 공개공지를 법적 기준인 10% 이상으로 계획하였으며, 유지관리비용도 자광측에서 계속해서 부담할 예정입니다. 기부채납을 하면 지하부분을 사용할 수 없고, 공개공지를 관리하기 위한 비용을 전주시가 부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또한, 기부채납을 위해서는 토지를 분할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사업계획이 다 틀어지게 되며, 서부신시가지 상업지역 내 밀집된 상가형태처럼 사용될 것임.
○○○ 위원	- 그러면 지하건축물의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주)자광 관계자	- 지하주차장 포함해서 약 8~9만평정도 됩니다.
○○○ 위원	- 공개용지 밑으로는 지하시설이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주)자광 관계자	- 네
○○○ 위원	- 공개공지가 기부채납의 개념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주)자광 관계자	- 정확하게 말하면 기부채납 범위에 들어가는데, 그것을 공공기여로 저희는 표시했습니다.

○○○ 위원	- 질문입니다. 이 사업방식이 PF방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일반적인 PF라는 것은 사업자가 토지를 확보하고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파이낸싱을 하는 것인데, 이 사업은 토지 자체를 파이낸싱을 했어요.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파이낸싱을 계속 한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 그렇게 된다면 이 사업의 안전성이 과연 담보될 수 있을지 저는 그 점이 상당히 의심됩니다. - 또 하나는 현금으로 전주시에 기부채납 등 이런 것들도 결국 PF하게 되면 결과물이 나올 때 현금 기부채납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그러면 전주시는 이 사업의 성공이 되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는지 걱정됩니다.
(주)자광 관계자	- 자광+시공사+신탁회사+금융회사가 허가 시점에 책임준공이라고 하는 법률적 효력이 있는 이행 확약을 제출할 계획이며, 또한, 계획 중 공공재원(천억원)도 착공 전에 선납할 계획입니다.
○○○ 위원	-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2035년도 전주시 기본계획이 주거용지로 확정되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만약에 이 기본계획을 바꾼다면 거기에 걸맞는 분명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말씀드린 것입니다.
○○○ 위원	- 일반시민들 입장에서 전주시 이미지에 153층의 익스트림타워는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 혹시 자광 측에서 계획을 세우실 때 여론의 동향을 파악하시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 또 하나는 다른 기반시설보다 더 복잡한 문제가 될 것 같은 것이 교통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단지 내 교통문제 해결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셨는데, 진입도로나 주변 도로상황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주)자광 관계자	- 저희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전주시민의 90%정도가 타워를 원하고 있습니다. - 교통에 대해, 전주시는 도로 면적 대비 교통체증이 심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주요 도로에 대한 교통 신호체계를 재정비하는 방법 등을 통해 20% 정도는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추후 교통영향평가 진행 시 요구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할 것입니다.

위원장	-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또 자광측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가질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또한 서면질의도 할 수 있습니다. -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주시길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 위원	- 그러니까 법이 예상 종료시점지가를 반영하신거 같습니다. - 두 번째 타워 구조체 부분과 타워 하부시설이 공공기여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타워구조체와 타워 하부시설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판단하신 건가요?
(주)자광 관계자	- 타워가 만들어지면 타워를 통해 관광객이 유입되는 등 기대 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에, 공공기여에 포함하였습니다.
○○○ 위원	- 그러니까 기대효과를 말씀하신거로군요.
○○○ 위원	-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효과까지 보고서에 담아주고, 그 부정적 효과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자광 관계자	- 위원님 말씀대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 질문을 하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우선권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 실은 많은 공공개발에서 기부채납을 할 때 그 이행이 담보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점입니다. - 회장님께서서는 기부채납을 할 때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신 적이 있는지, 있으시면 그 방법들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건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자광 관계자	- 시공사, 금융사, 신탁사에서 법률적으로 담보가 되는 이행보증, 보증기관의 보증서, 본 건물을 포함하여 담보하고, 공공 기부채납 건물을 동시에 착공하는 방법 등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위원	- 사업을 하는 이유는 이익이 필요할 것이고, 이익 실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셨기 때문에 하시는 것일 텐데요. - 실제 사업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입이 어느 곳에서 나올 것이라 생각되는지 이야기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주)자광 관계자	- 타워와 호텔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 타워 사례를 볼 경우 수익이 상당합니다.

○○○ 위원	- 그러면 자광 계획안의 핵심은 타워에 있는거고, 수정 불가능한 마지막 마지노선은 타워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주)자광 관계자	- 네 맞습니다.
○○○ 위원	- 그 다음에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과 대한방직 부지개발의 연관성 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한방직 부지에 민간주도사업으로 호텔이나 컨벤션 등의 시설들이 포함이 된다면 전주시 입장에서든 좋아보이기는 합니다. 현재 롯데쇼핑이 경기장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걸 중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광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주)자광 관계자	- 공론화가 끝나고 대한방직 부지에 사업이 시행되어, 인프라가 다 구축된다면, 롯데측은 종합경기장이 아닌 대한방직 부지로 넘어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 위원	- 롯데쇼핑과 이야기를 해 본적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주)자광 관계자	- 네, 그렇습니다.
○○○ 위원	- 혹시 전주시민회에서 언론에 성명서를 낸 것을 알고 있으십니까?
(주)자광 관계자	- 네, 그렇습니다
○○○ 위원	-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 짧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자광 관계자	- 제가 볼 때는 전부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 위원	- 기은센구조환? 이건 뭐니까?
(주)자광 관계자	- 요즘 금융시장에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저희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은행에서 직접 투자할 수 있고요, 투자상품으로 만든 겁니다. - 우리 회사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출에 은행과 은행들이 모여서 펀드를 만들어서 그 곳에 돈을 넣고 그 돈을 투자를 하는 거죠. - 투자방식이 다른 겁니다.
○○○ 위원	- 그럼 이게 파생상품 이름인건가요?
(주)자광 관계자	- 아닙니다. 직접 이 대출금에 투자한 회사들이 기은센구조1차라는 이름을 임시로 만들어서 통장 개설한 거와 같은 의미입니다. - 대출에 투자한 은행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회사 주식을 산 거는 아닙니다.
○○○ 위원	- 나중에 전문가를 통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공론화위원회가 공정하게 그리고 절차와 과정이 공평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론화위원회가 안을 내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자광 측의 설명이 필요하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평가 항목 결정 관련	
발 언 자	발언 내용
위원장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지난번에 공론화 관련 홈페이지 구성 내용은 최종 확정해서 작업중에 있고 공론화 용역 방식은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하고 과업지시서와 내역서도 의원님들 의견 반영해서 확정했습니다. - 오늘은 제4차 회의 안건으로 제안서 평가 항목에 대한 결정 내용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간단하게 설명 해주시죠.
전주시 관계자	- 일단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 방식을 정해주셨습니다. - 협상에 의한 방식은 회사의 제안서에 대한 평가 점수가 80점이고, 가격평가 점수가 20점입니다. - 평가는 기본적으로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가 있습니다. 정량적 평가는 회사 상태에 대한 평가입니다. 경영상태, 수행실적, 인력, 현황, 신용도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객관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평가하며, - 정성적 평가를 평가위원님들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해야하는 부분이 60점이 되겠습니다. - 총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가격이 20점 합쳐서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진행해서 계약당사자를 결정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 추진 일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오늘 평가기준을 결정 해주시면 바로 내일 계약부서와 협상에 의한 방식이 타당한지를 협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상감사를 다음주 수요일까지 하고 그 뒤에 입찰공고를 10일간 공고하면서 10일 동안 제안서를 받습니다. 제안서를 받고 일주일 정도 평가위원을 구성해 평가하고 바로 가격 입찰을 해서 평가를 하고 협상적격자를 선정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 ○○○ 위원님하고 ○○○ 위원님이 의견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 그리고 지난번에 시민참여단 규모를 100명으로 할지 150명으로 할지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 일단 예산상 최대한 반영을 해서 120명 정도로 했고요. 토론회는 숙박은 비용이 많이 들어서 하지 않고 당일로 해서 2번,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안을 정했습니다.
위원장	- 제안서 평가 항목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 위원	- 입찰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전주시 관계자	- 추정가격은 1억3천만원으로 했습니다. 시나리오워크숍 참여자 수당 지급에 필요한 금액은 별도로 입찰 차액으로 보전할 계획입니다.
○○○ 위원	- 더 이상 의견 없으신 관계로 제안서 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결정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땡땡땡 - 그리고 지난번 위원님들께 부탁드렸듯이 평가위원 구성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주변분들에게 말씀하셔서 등록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 회의날짜 선정

위원장	- 오늘 시간이 많이 지연되어 두 번째 안건에 대해 얘기할 시간이 부족할 거 같단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에는 다음 회의 일정을 빨리 잡아서 그때 논의를 하는게 어떻게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7월 8일 오전 9시30분 어떻습니까?
위원들	- 네, 괜찮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다음 회의는 7월 8일 오전 9시30분에 하겠습니다. - 그리고 하나 지난번에 시나리오워크숍 그룹명에서 ‘정책도시전문가’ 라고 했는데 다른 그룹은 지역경제, 시민 이렇게 하다가 도시만 전 문가 단어가 들어가서 ‘도시관리’로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 위원님, ○○○ 위원님, 각각 그룹의 인원이 홀 수가 좋습니까? 짝수가 좋습니까? 일반적으로
○○○ 위원	- 시나리오워크숍하기에는 짝수 홀수 상관없이 그룹별로 인원수만 맞으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 네 알겠습니다. ○○○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위원	- 거의 공론화위원회가 시나리오워크숍으로 가기 전의 기본일정은 거의 정리가 된 거 같은데, 오늘 설명을 들으면서 느낀 점은 앞으로 고려해야될 게 있고, 우리가 기준을 세워야 된다거나 고려해야 될 점들을 간사님과 위원분들, 그리고 행정과 정리를 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 네, 저도 오늘 자광 브리핑자료에 대해서 우리 위원 나름대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나름대로 각자 정리를 한번 해주셨으면 한다는 부탁을 드리고 다음번에 한 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지금 좋은 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하나의 과정인데요. 그 과정에서 자광에서 하나의 안을 던졌는데 그것이 가지고 올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정확히 숙지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가 시나리오워크숍의 참여자 논의가 어느정도 마무리가 되면 자광 내용뿐만 아니라 그 논의 자체가 사전준비위원회에서 했던 의제 방향 정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동되서 얘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자광 안에 대해 O X 할 것도 아니고 자광 안에 일부 수정안을 낼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전준비위원회가 했던 공론화 의제 방향 정리, 뭘 물어볼 것인가와 연동되서 자광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와 같이 얘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	-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될 것이 PF사업에 대해서 신탁회사에 맡겨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 실질적으로 종사하시는 분을 한번 전문적인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디에서 구멍이 날 수 있고 어디에서 위험성이 있는지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경우에 수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 그래서 신탁회사에 있는 실무자한테 이 자광 안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인 자문을 구해 보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 네 좀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 볼 필요는 있을 거 같습니다. - 그럼, 이상으로 제4차 시민공론화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